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 걸

최미진*

1. 1950년대와 아프레 걸
2. 팜므 파탈로서 성매매 여성의 변전(變轉)
 - 2-1. 부정한 여성의 표상, 양갈보
 - 2-2. 전후 팜므 파탈의 호출, 다방 마담
3. 현대여성이라는 미망(迷妄) 넘나들기
 - 3-1. 양가적 여성으로서 직업여성
 - 3-2. 아프레라는 이름의 여대생 구별 짓기
4. 신문소설 속의 아프레 걸과 남은 과제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1950년대 발표된 신문소설을 대상으로 당대 아프레 걸을 범주화하고 그 재현 방식을 살펴보는 데 있었다. 무엇보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아프레 걸 혹은 아프레라는 명명은 195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전쟁기에는 최태웅의 『전후파(戰後派)』라는 소설 제목처럼 ‘아푸레게르’로 명명되었던 바, 후방에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러던 것이 195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실낙원(失樂園)의 별』과 『백조흑조(白潮黑潮)』에서는 ‘아프레’ 혹은 ‘아프레 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아프레 걸, 아프레, 전후파, 현대여성’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으며, 대체로 전후 여성의 특정한 경향을 일컫는 말로 통용되었음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프레로 명명되거나 범주화된 여성은 대체로 전통적인 여성 젠더 이데올로기에 벗어난 부정적 여성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한국전쟁기 양갈보나 유한마담, 전후 다방마담이나 댄스홀 여사장 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타락한, 부정적인 여성상으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기 직업여성은 허영도 없지 않지만 자기 주관에 있는 양가적 여성으로, 그리고 전후 대표적 아프레 걸인 여대생은 그들 특유의 적극적인 발랄함과 개방성 때문에 미덕과 악덕을 오가는 이중적 여성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만큼 전후사회는 전통적인 여성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여성들을 부정적으로 규정짓는 지배적 담론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아프레로 명명되거나 범주화된 여성은 대립되는 여성상을 통해 더욱 부정적으로 규정되었다. 대립되는 여성상은 다름 아닌 전통적인 여성상, 그러니까 순결하고 정숙하며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상이었다. 결국 아프레로 명명되거나 범주화된 여성의 부정성은 대부분 전통적 여성의 승리의 서사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당대 사회에서 아프레 걸을 사회적 규율 통제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지배적 담론의 성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부응하고 있는 신문소설의 타협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주제어

1950년대, 한국전쟁, 전후사회, 신문소설, 최태웅, 정비석, 김내성, 장덕조, 『전후파(戰後派)』, 『여성전선(女性戰線)』, 『실낙원(失樂園)의 별』, 『백조흑조(白潮黑潮)』, 아프레 걸, 아프레, 전후파, 전전파, 현대여성, 양갈보, 유한마담, 자유부인, 직업여성, 여대생, 다방 마담, 젠더 이데올로기

1. 1950년대와 아프레 걸

1950년대는 한국전쟁과 그 상흔으로 점철된 시대이다. 한국전쟁은 인

구의 대이동과 변동, 계층 이동, 사회조직의 교란, 가치관의 혼란 등을 초래하였다.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어느 측면에서도 독자성과 자주성을 제대로 갖지 못”¹⁾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원조 물량과 더불어 유입된 미국식 문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내세운 이승만 정권의 독재 속에서 한국의 근대화가 미국을 모델로 삼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더욱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팽배해진 미국에 대한 극단적인 우호감은 미국식 문물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데 조력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문물은 오컴의 칼날처럼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미국식 향락문화는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가 문제 삼은 것은 저급한 미국 문화가 아니라 그것을 모방하는 여성이었다.

두루 알다시피 한국전쟁은 여성에게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책임과 독립성을 부여하였다. 여성은 한국전쟁을 직접 체험하거나 남성의 부재와 부족한 남성 노동력을 대신하여 경제전의 전사로 일하도록 요구받았다.²⁾ 그렇지 않다면 남성을 대신하여 “집안을 유지해야 하고 가계를 세우야 하고 자녀를 가르쳐야하고, 백전불굴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경험을 체험”³⁾해야 했다. 결국 한국전쟁은 가정과 사회

1)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백산서당, 1999, 264~282쪽.
 2) 이입하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여성동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여성의용군’으로 행정이나 정훈 등 비전투행위를 전제로 참전한 경우이다. 1950년 8월에 모집되었다가 1951년 이후 유명무실화되었다. 둘째, ‘경제전의 전사’로 활동하면서 병사들을 ‘위문’하는 경우이다. 공공기관이나 공장에서 남성을 대신한 경제적 활동에 동원되는 동시에 병사들을 위한 노력봉사, 급전이나 물품, 편지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성(性)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오락과 유흥을 제공하여 병사들의 노고를 ‘위안’하는 경우이다. 국가와 미국이 이러한 ‘위안형 주체’ 양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이입하,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 『역사연구』 제14호, 역사학연구소, 2004, 107~148쪽.

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성의 자기 성장과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각성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였다. 1950년대 제기된 남성 위기론은 전후 상대적으로 약화된 남성의 지위와 남성성 상실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었다. 근대화의 주체도, 전통적인 가부장도 될 수 없는,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남성성의 위기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남성 위기론이 문제 삼은 것은 여성의 약진이었고,⁴⁾ 나아가 아프레 걸의 등장이었다.

아프레 걸 혹은 아프레로 명명되었던 여성들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⁵⁾ 이들 연구들은 1950년대 정부 기관이나 여성 잡지들을 대상으로 여성 담론들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하였다. 특집 기사나 비평을 중심으로 아프레 걸을 위험한 여성으로 내모는 당대 여성 담론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프레 걸은 불어 아프레게르(après-guerre)에서 파생된 말이다. 원래 아프레게르는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불어 다친 새로운 움직임, 그러니까 “구질서에 반항하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⁶⁾ 혹은 “모라리티의 여성”⁷⁾을 일컫었다. 전쟁을 겪은

3) 박종화, 「해방 후의 한국여성」, 『여원』 1959년 8월호, 73쪽.
 4) 전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생활난 극복을 위해 권장되는 다른 한편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업자가 많은 우리 형편으로서 남성 근로자들에게 더욱 큰 위협을 가져올 뿐”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이혜복, 「한국매춘문제」, 『여성계』 1958년 3월호, 77쪽. 이러한 시각은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 바 있다. 메릴린 엘름, 이호영 옮김, 『순종 혹은 반항의 역사 아내』, 시공사, 2003, 578~581쪽.
 5) 1950년대 아프레 걸 관련 대표적인 논저는 다음과 같다. 이입하, 『여성, 전쟁을 넘어서다』, 서해문집, 2004; 이정희, 「전후의 성담론 연구-종전에서 4·19이전 시기의 여성잡지와 전후세대 여성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담론201』 제8권제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5;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6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강소연, 「195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 『상허학보』 제18집, 2006.

후 기존의 질서나 가치관으로 해결할 수 없어진 인생이나 운명에 대한 질문과 자학 혹은 거침없는 행동들을 표출하는 전후 세대, 특히 아프레 걸의 새로움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아프레 걸은 그 새로움보다 여성 젠더의 전통적 범주를 벗어난 부정성에 주목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프레 걸 혹은 아프레로 명명된 여성들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프레 걸은 특정한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인가 하면 불특정 여성의 부정적인 일면을 강조하는 용어로도 사용된 혐의가 짙다.⁸⁾ 그렇기에 아프레 걸은 부정적인 여성을 호출하는 다양한 명명들과 병존하거나 혼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자유부인, 유한마담, 현대여성, 계부인, 알바이트 여성, 양공주, 미망인, 독신여성 등 1950년대 여성에 대한 다양한 명명들이 아프레 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취급되었던 것이다. 아프레 걸이 특정 여성뿐 아니라 전통적인 여성 젠더에서 벗어난 모든 여성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다.

이 글은 1950년대 신문소설을 대상으로 아프레 걸로 호출된 여성들을 범주화하고 그 재현 방식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⁹⁾ 1950년대 신문소

6) 조풍연, 「아프레게르와 처녀성」, 『주부생활』 1959년 4월호, 224쪽.

7) 이명은, 「민주여성의 진로」, 『신천지』 1954년 7월호, 94쪽.

8) 김은하는 1950년대 아프레 걸이 “객관적인 지시대상이 뚜렷하기보다는, 소문과 상상 속에서 가공되고 부풀려진 존재”였거나 “불건전한 사조”로 취급되었음을 지적된 바 있다.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 16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91쪽.

9) 이 글에서는 1950년대 대표적인 아프레 걸로 간주되어 온 “자유부인” 혹은 “유한마담”의 논의는 제외한다. 그간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다양한 관점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집적되어 온 까닭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강진호, 「전후세대와 소설의 존재방식-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0.; 강찬모, 「부인명 소설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성의 자각과정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5집, 한국문학이

설을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당대 대표적인 매체인 신문이 공적 담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음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중기와 전후에 걸쳐 신문매체에 소설을 다수 발표했던 작가들을 우선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인 신문소설은 최태응의 『전후파(戰後派)』(『평화신문』, 1951.11-1952.4), 정비석의 『여성전선(女性戰線)』(『영남일보』, 1952.1.1-7.9), 김내성의 『실락원(失樂園)의 별』(『경향신문』, 1956.6.1-1957.2.25), 장덕조의 『흑조백조(黑潮白潮)』(『국제신보』, 1958.5.14-12.31)이다.¹⁰⁾

2. 팜므 파탈로서 성매매 여성의 변전(變轉)

2-1. 부정한 여성의 표상, 양갈보

론과비평학회, 2007; 김복순, 「반공주의의 젠더 전유양상과 “젠더화된 읽기”-<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제5권 제1호, 문학과영상학회, 2004; 최미진, 「부인명(夫人名)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1호, 2004; 김영애, 「<자유부인>에 나타난 인물형상화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김일영, 「정비석의 신문소설 <자유부인>에 나타난 풍속의 양상」, 『인문과학연구』 제4집,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박유희, 「<자유부인>에 나타난 1950년대 멜로드라마의 변화」, 『문학과영상』 제6권 제2호, 문학과영상학회, 2005; 서현석, 「“자유”와 “부인”의 불가능한 변증법-<자유부인>에 나타나는 단절의 미학」, 『영화연구』 제22권, 한국영화학회, 2003; 이시은, 「전후 국가재건 윤리와 자유의 문제-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26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임선애, 「전후 여성지식인, 자유부인의 결혼과 일탈-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한국사상문화』 제31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주창규, 「“노란 피부, 하얀 가면 무도회”로서 <자유부인>의 충무로 여성관객성에 관한 분석」, 『영화연구』 제21집, 한국영화학회, 2003.

10) 이 글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최태응, 『전후파(戰後派)』, 정음사, 1953; 정비석, 『여성전선(女性戰線)』, 한국출판사, 1952.; 김내성, 『김내성대표문학전집 3~5: 실낙원(失樂園)의 별(상·중·하)』, 삼성문화사, 1983; 장덕조, 『백조흑조(白潮黑潮)』, 『국제신보』, 1958. 5.14~12.31.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부각된 아프레 걸은 외국군인, 특히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이다. 1948년 2월 14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7호 ‘공창 제도등 폐지령’을 시행하여 제도로서의 공창을 폐지했던 행정 책임기관이 바로 미군정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사창의 창궐을 묵인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¹⁾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미군의 주둔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와 미국은 미군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의 확산을 좌시하였다.¹²⁾ 이러한 가운데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은 “양공주”, “유엔 마담”, “유엔 사모님”, “양갈보” 등으로 명명되었다.

『전후파(戰後派)』는 최태웅¹³⁾이 1951년 5월 창설된 육군중군작가단에서 활동하면서 『평화신문』¹⁴⁾에 연재한 첫 장편소설이다. 소설 제목처럼

- 11) 미군정기 성매매 여성과 관련된 대표적 논저는 다음과 같다.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 여성운동 약사』, 한국부인회 총본부, 1985; 송연옥, 「조선부녀총동맹-8-15 해방직후의 여성운동」, 『조선민족운동사연구』 제2호, 1985; 문경란, 「미군정기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이승희, 『한국현대 여성운동사』, 백산서당, 1994;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제9권, 역사학연구소, 2001.
- 12) 이입하에 따르면 1950년대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의 증감은 전쟁 및 미군 주둔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1951년 7월 이후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의 수가 크게 급증했던 반면 미군이 본격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에는 내국인 상대 성매매 여성보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입하, 『여성, 전쟁을 넘어서다』, 서해문집, 2004, 131-137쪽.
- 13) 황해도 장연 출신인 최태웅은 한국전쟁기 창작뿐 아니라 육군중군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신영덕,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136-142쪽. 특히 그는 1950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훈국 기관지로 평양에서 발간된 『평양일보』의 편집 겸 발행인으로도 활동했다. 최 준, 『한국신문사』, 일조각, 1990, 362쪽. 이러한 이력은 그가 당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14) 『평화신문』은 한국전쟁으로 중앙지들이 휴간되었던 1950년 7월 3일부터 대전 대구에서 임시 호외 형식으로 발간을 계속하였고, 특히 공산군에게 점령당한 서울 시민들을 위해 바깥소식을 비행기로 공중에서 살포한 바 있다. 최준, 『한국

‘전후파’는 한국전쟁기에 이미 거론되기 시작한 화두였다. 이 소설에서 “아푸레게르”는 “전후” 혹은 “전후파”와 함께 명명되는 용어로 “일종의 누림(亭標)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지칭한다. 그들은 “국외(國外)에서 스며 들어온 사치품”으로 “오색(五色) 어지러운 화장과 복장”을 하고 “야시(夜市)를 이룬 일본 서적들”과 “골목마다 취흥을 타고 흘러 나오는 일본 노래들”을 향유한다. 휴전회담을 한국전쟁의 종식으로 간주하고 후방에 안주하여 흥청거리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 소설이 “將次 必然的으로 창궐할 戰後派에 對한 一種의 事前警告”¹⁵⁾라는 작가의 말처럼 “아푸레게르”의 표상은 다분히 부정적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부정적 표상인 “아푸레게르”의 구성방식이다. 우선, “아푸레게르”를 통해 비판하는 대상이 일본의 퇴폐적 향락 문화라는 점이다. “아푸레게르”는 “난잡하고 저속한 일본 잡지들”에서 “가장 썩어진 면과 가장 음란한 면”을 모방하여 확보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모방의 주체를 차지한다면 모방의 대상인 일본의 퇴폐적 향락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국전쟁기 후방에서 향락문화의 모델이 과연 외교가 단절된 일본뿐일까라는 점은 의문이다. 식민지 잔재로 간주하더라도 일본의 향락문화를 강조하여 비판하는 것은 작위적인 경향이 농후하다. 그것은 장동규가 “양갈보”를 찾아온 미군을 “<모과상>”을 입을 만큼 교양을 갖춘 “신사”로 형상화한 것과 비교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만큼 한국전쟁기 미국에 대한 극단적인 우호감 혹은 예우가 불러온 결과물이자 작가의 편향적 서술태도가 빚어낸 결과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아푸레게르”가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남녀 모두를 비판의

신문사』, 일조각, 1990, 361쪽.

15) 최태웅, 『전후파(戰後派)』, 정음사, 1953, 304쪽.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하나,¹⁶⁾ 정작 초점화한 것은 여성, 특히 미군 상대 성매매여성이라는 점이다. 이 소설에서 여성 작중인물들 대부분은 미군 상대 성매매여성인데, 그들이 “아푸레게르”가 표상하는 부정적 여성상을 재현하고 있다.

내용인즉 해방 전에 중국일대를 다 돌아다니던 뎨서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날부터 허영에 떠서 옷을 벗고 나선 양갈보로 안나를 규정해 놓은 다음, 가기 어려운 일선지구까지 남보다 먼저 기어 들어가, 할 짓 못할 짓 다 해가며 적지 않은 물질과 달러를 단단히 긁어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온 안나가, 어리석고도 염치 없이 지난 날의 정부(情夫)를 찾아 와서, 그에게 달러 교환을 맡기고 그와의 단꿈을 그리는 동안에 남자는 어디로인지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고리짝 세 개에 그득찬 미군 물품을 몇 가지 팔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압수를 당하고 말아서 거리마다 골목마다 반미치광이가 되어 울부짖으며 헤매이던 끝에 영도 뒷기슭 깊은 물에 뛰어 들고 만 것이라 했다.

일러 「허영에 뜬 매춘부의 말로」라고 만담조로 결론을 맺은 기사를 읽고 동규는 다시 한 번 안나의 이름과 아울러 그가 살아서 울고 웃고 움직이던 날의 모습들을 그려 보았다.

변명이 아니라 그도 그렇게 째어진 운명의 고랑을 고스란히 걸어 온데 지나지 않은 다만 하나의 인간이었으며 기구하고도 슬픈 생애의 여인이었다는 생각만이 동규의 머릿속에 떠 올랐다.¹⁷⁾

16) 부정적인 남성 작중인물은 김민섭이 대표적인데, 그는 “마카오 양복에 값비싼 중절모에 번쩍거리는 칠피 구두에 나이는 삼십도 못되어 보이나 지나치게 차란” 청년 실업가이다. 아편 밀수단 괴수로 체포되는 그의 이력에서 드러나듯, 그는 “아푸레게르”의 특성보다 부정적인 실업가, 나아가 부패한 현실을 재현하는 인물에 가깝다

17) 최태웅, 『전후파(戰後派)』, 정음사, 1953, 259쪽.

인용문은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인 안나에 대한 신문기사와 그것에 대한 장동규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문기사는 무엇보다 한국전쟁기 안나와 같은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을 “양갈보”로 폄하하면서 그 선택이 자의적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양갈보”라는 명명은 순결성을 잃은, 오염된 육체를 지닌 부정적 여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오염된 육체는 민족의 치욕스러운 현실의 기호로 읽히기보다 팜프 파탈로 재현된다. 안나가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활동했던 뎨서로 “지난 날의 정부(情夫)”가 있었다는 사실은 광복 후 “양갈보”의 선택이 타락한 여성의 정해진 행로임을 환기시킨다. 이때 “양갈보”는 자발적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 팜프 파탈로 전이된다.

더욱이 신문기사는 안나의 죽음을 “양갈보” 개인의 “허영”에 원인을 둬으로써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한편 “아푸레게르”의 특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나가 전선을 누비며 미군 상대 성매매를 통해 “적지 않은 물질과 달러”를 모은 것에 자족하지 않고, “고리짝 세 개에 그득찬 미군 물품”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하려 했다는 점과 과거 정부(情夫)의 사랑을 되찾으려 했다는 점은 “양갈보”의 “허영”으로 간주된다. 이때 안나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아푸레게르”의 전형인 셈이다. 그러나 “허영”의 원인을 지운 채 성욕과 몰욕을 더 많이 욕망하는 과정만을 초점화하고 있다. 안나의 “허영”은 “양갈보”인 자신을 여느 평범한 여성과 동일하다고 믿으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나는 “양갈보”의 삶을 실패로 간주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에 부의 축적과 새로운 사랑 추구를 통해 그 실패에 동의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안나가 구축한 ‘가상적 사회적 정체성’일 뿐이다. 그녀는 정부(情夫)의 배신과 몰품 압수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양갈보”인 자신의 ‘실제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했고, 그것이 자살의 동기를 제공한다.¹⁸⁾

하지만 신문기사는 안나를 고약한 “아푸레게르”이자 팜프 파탈로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양갈보” 안나를 “어리석고도 염치 없는”, “허영에 뜬” 팜프 파탈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제 “양갈보”라는 명명은 순결성과 순수성을 지니지 못한 여성에서 나아가 그러한 여성의 수치와 죄악을 모르고 “허영”에 들뜬 팜프 파탈을, “아푸레게르”를 표상한다.

신문기사를 한국전쟁기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알레고리로 본다면, 당대 사회에서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담론화되었는지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것은 장동규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장동규는¹⁹⁾ 신문기사로 접한 안나의 죽음을 감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안나가 동료였던 시인 김유악의 전처였으며 서울에서 잠시 같은 집에서 기숙했다는 정리(情理)에서 “기구하고도 슬픈 생애의 여인”으로 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한 이유가 많은 여성들처럼 생활난에 있었다는 점²⁰⁾뿐 아니라 “허영”이라 몰아세운 사건의 이면을 애써 들춰내려 하지 않는다. 장동규 또한 은연중에 안나를 팜프 파탈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 소설에서는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의 동기가 생활난보다 여성의 사치와 허영에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아푸레게르”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것은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을 일방적으로 폄하

하는 신문기사, 미군에 대한 극단적 우호감을 표현했던 장동규, 그리고 미군상대 성매매 여성의 집을 “양갈보의 소굴”로 폄하하는 작가 모두의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부수적 인물인 안나의 죽음보다 주인공 여옥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강조하기 위한 작가의 전략과 맞물려 있다. 여옥은 과거 장동규가 가르쳤던 여학교 제자로,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들의 통역을 하고 있지만 “아낄 것은 아끼고 깨끗한 것을 깨끗한 채 부여안고 있”는 여성이다. 그러나 성장(盛壯)한 여옥의 외양은 “유한매담”이나 “양갈보”와 다를 바 없다는 점과 스승인 장동규를 유혹하여 애인으로 삼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옥 또한 팜프 파탈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그럼에도 여옥이 안나와 견주어 고평되는 것은 악조건 속에서도 순결을 지켰다는 점과 희생적이고 순종적인 사랑의 자세 때문이다. 여옥은 점차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지우고 가부장제 질서가 요구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재현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전쟁기 지배적 담론은 전통적인 여성상을 요구하는 만큼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을 사회적 악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양갈보”는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아푸레게르”를 대표하는 팜프 파탈로 호출되어 비난받았던 것이다.

2-2. 전후 팜프 파탈의 호출, 다방 마담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팜프 파탈의 재현 방식은 전후 다른 유형의 성매매 여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이 기지춘 문화를 형성하며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반면 근대적 도시에 새롭게 형성된 공간, 이를테면 다방, 댄스홀, 고급 요정이나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매매 여성이 등장한다. 특히 1950년대 다방은 도에서 “한 집 건너 한 집” 있을 만큼 창궐했는데, 당대 신문소설에서 음성적인 성매매 여성으로 다방 마담이나 점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장덕조

18) 크리스 설링, 임인숙 옮김, 『몸의 사회학』, 나남, 1999, 130-131쪽.

19) 이 소설은 주인공인 장동규가 소설가로 설정되어 있는 점, 시간적 배경이 1951년 겨울에서 다음해 봄으로 발표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 종군작가로 강원도 일대 최전선을 돌며 전사들과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그 체험을 부산에서 강연하고 있는 점 등에서 한국전쟁기 작가의 행적과 시각을 장동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20) 안나가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한 것은 광복기 전제민으로서 생활난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광복기와 한국전쟁기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 대부분 성매매 행위의 동기가 생활난이었음을 문맥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입하, 『여성, 전쟁을 넘어서다』, 서해문집, 2004, 137-141쪽.

의 『백조흑조(白潮黑潮)』에서 나미 다방의 호나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략)대개 남자와 여자의 쾌락이란 애정위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걸텐데.』

『그건 목은 관념이 예요. 구 사상이야.』

『그렇까』

『그런 사고방식은 옛날생각이야. 난 애정을 떠나서 육체만으로 어떤 남성이건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중략)

『난 내몸을 한 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취나 다이아몬드 상품인듯이 호나미의 몸도 상품이야. 그 사람은 물건을 아직 못 보았으니 내 생각을 이행하거나 어떻게 거래(去來)를 승낙할수가 있겠어요?』(중략)

『(전략)나는뽀어죽이건제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상품가치의 상실과 함께 그상인이 깨끗이 세상을 단념하고 죽을수 있다면 미담(美談)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추태지요.』²¹⁾

인용문은 호나미와 최종필이 성행위를 끝내고 대화하는 장면이다. 최종필은 태창기업주식회사 전무로 “여자를 상대루 놀아내는게” 전문인 남성이다. 그럼에도 그는 사랑이 “애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호나미는 정신적인 애정을 “구 사상”이라고 반박하며 사랑은 “육체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나미에게 사랑은 곧 성(性)이라는 논리가 우월한 가치를 지닌 새로운 사상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나미 다방은 여느 다방처럼 “정치인들의 음모 장소구 실업가들의 계집 피는” 공간으로 표상된다.²²⁾ 이러한 공간에서 호나미는 자신의 미모

21) 장덕조, 『백조흑조(白潮黑潮)』, 『국제신보』, 1958.7.8, 4면.

나 육체를 이용하여 남성을 유혹하는 전형적인 팜프 파탈로 재현되어 있다. 팜프 파탈로서 호나미의 재현방식은 앞선 미군 상대 성매매여성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호나미는 남성 중심적 시각의 틈새를 공략하는 팜프 파탈이다. 그녀는 생활난 때문에 전적으로 성매매 행위에 의존하는 여성이 아니다. 물론 그녀는 다방 손님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먹고 살게 해주는 도구”로 간주한다. 나아가 다방손님을 자신의 미모나 육체를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무책임한 사람”이라 비판하는 데 서슴지 않는다. 그러니까 호나미에게 다방 손님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무책임한 존재로 격하되고 나아가 생활 유지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성매매 여성을 폄하하고 대상화하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다음으로, 호나미는 자신의 미모와 육체를 당당하게 “상품”으로 현시하고 남성중심주의적 시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팜프 파탈이다. 이 소설에서 그녀의 육체는 최종필과 그의 친구인 의사 이윤진의 시선을 통해 재현되는데, 철저하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남성 중심주의적 관점이 작용되고 있다. 바라보기만 했던 이윤진의 시선에서 호나미의 육체는 인간이 아닌 “야성의 매력이 꿈틀거리는” “동물적” 감각을 지닌 대상이라면, 성적 경험까지 한 최종필에게 호나미의 육체는 “모든 것이 남성의 쾌락만을 위하여 가장 적합 미묘하게 구성된 놀라운 생물”이다. 이렇듯 두 남성 작중인물의 시선에서 호나미는 여성이라기보다

22) 이 소설의 다른 다방, 특히 화원 다방은 나미 다방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지만 상류층만이 이용하는 다방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러한 다방 간의 구별 짓기는 당대 다방을 이용하는 고객에 따라 계층화 양상을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1950년대 다방이라는 표상 공간의 특성은 다각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동물”이나 “생물”에 가까운 성적 대상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호나미는 자신의 육체를 응시하는 이러한 남성의 시선을 만족해할 뿐 아니라 그들의 지배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한다.

호나미에게 육체는 “성(性)이고 사랑”인 동시에 “상품”이다. 그녀의 육체는 탐구 대상일 뿐 아니라 자신감을 통해 구성되는 자기 존재의 근거이다. 그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육체”를 만들겠다는 욕망을 피력하는데, 그 육체는 “젊음과 기교와 매력”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녀가 그러한 육체의 조건을 갖춘 소유자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에 대한 자신감은 그녀를 삶의 주체로 혹은 자유로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²³⁾ 오히려 그것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규범으로 삼아 소외의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남성의 은밀하지만 지배적인 메커니즘을 재현한 것이다.²⁴⁾ 그러니까 그녀의 육체는 전후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새롭게 요구하는, 여성의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지배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한 지점인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육체를 남성들 앞에 당당하게 “상품”으로 현시하고, 그 “상품”의 가치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획득하고 있다. 이미 그녀의 육체는 남성중심적 관점이 지배하는 물적 대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육체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서 헤어지지 못하는줄로 믿”을 만큼 “상품”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상품가치”에 대한 자신감은 성관계 후 “자기 육체의

23) 서구의 육체해방운동은 거추장스러운 의복으로부터의 해방과 지배받는 성(性)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여성이 삶의 주체이자 자유로운 육체를 가진 인간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장 클로드 코프만, 김정은 옮김, 『여자의 육체 남자의 시선』, 한국경제신문사, 1996, 39쪽.

24) 장 클로드 코프만, 김정은 옮김, 『여자의 육체 남자의 시선』, 한국경제신문사, 1996, 40쪽.

값을 평가하고” 당당하게 “물질적 급여”를 요구하는 행위에서도 드러난다. 남성이 자신을 물적 대상으로 대하든 연인으로 대하든 상관없이 호나미는 스스로 자신의 육체를 “상품”으로 간주하고 그 가치를 “금전의 응수(應酬)”를 통해 거듭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호나미는 자신의 육체를 “상품”으로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매춘부”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매춘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품의 가치를 정당하게 교환하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여긴다.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치를 곧 자신의 생명으로 간주한다. “상품가치의 상실”은 곧 죽음을 의미할 만큼 그녀는 육체, 곧 성(性)을 통해서만 생의 의미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나미는 육체를 이용하여 여러 남성을 유혹하고 파괴하는 일에 “스릴”을 즐기는 팜프 파탈이다. 뇌쇄적인 미모와 육체로 남성을 유혹하여 파멸에 이끄는 팜프 파탈인 것이다.²⁵⁾ 그녀는 이운진의 “전시대적” 관념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유혹하기 시작한다. 점차 이운진에게 이끌리면서 “구애(求愛)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결혼부정론자”인 그녀의 호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백명 박사를 이용한다. 백명은 외과의사로서 사회적 명예와 지위, 인품을 갖춘 노학자이다. 그녀는 백명을 존경하는 이운진에게 백명을 유혹하지 않는 대가로 결혼 약속을 받아내지만 결혼이 지지부진하자 다시 유혹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백명에게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는 데도 그를 “황홀한 쾌락”의 세계에 빠뜨려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며 도덕의식까지 마비시킨다.²⁶⁾ 또한 이운진이 애인 연경채와 결

25) 김인철, 「영화 영상 이미지의 ‘전형’에 관한 연구-팜프 파탈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제10권, 한국비주얼디자인학회, 2004, 211쪽.

26) 백명은 호나미와의 “황홀한 쾌락”을 위해 스스로 병원에서 몰래 몰핀을 구해와 주사한다. 또한 비합법적인 유산수술을 반대하던 그가 호나미의 유산 집도를

별 위기를 맞고 병원을 스스로 사퇴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듯 호나미는 남성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전형적인 팜프 파탈로 스스로 “악녀(惡女)”임을 인정하고 즐긴다.

이렇듯 호나미는 남성중심주의적 시각을 이용하거나 그 틈새를 공략하고 나아가 파괴하는 팜프 파탈로 재현된다. 제인 빌링허스트에 따르면, 요부는 남성이 여성에게 투사한 하나의 이미지 혹은 공유된 욕망의 모험담으로, 남성의 우월성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재현 방식이 달라진다. 남성지배적 사회질서가 안정적이거나 우월할 때 요부는 순진해 보이는 매혹적인 여성이나 성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백치미의 여성으로 재현된다. 그러나 남성지배적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남성은 질서를 부과하려 하는 반면 여성은 그 질서를 뒤엎으려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을 때 치명적인 여인, 팜프 파탈이 등장한다.²⁷⁾ 호나미처럼 탐욕스러운 성적 욕망의 화신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의 남성을 모두 빨아들여 파멸시켜 버리는 팜프 파탈로 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팜프 파탈로서 호나미의 재현방식은 전후 한국의 남성지배적 사회질서가 불안정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1950년대 제기된 남성위기론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팜프 파탈인 호나미는 당대 사회에서 “아프레” 여성으로 호출된다. “명동에서 유명한 근대적 마담”이자 “일류 마담”인 호나미는 “근대적인 미모와 육체”를 가지고 아프레적 애정관계를 구현하는 여성이다. 이때 “근대적”은 긍정과 부정, 선망과 경멸을 함께 머금고 있다. 하지만 “아프레”로 명명되는 순간, “근대적”은 아프레와 동격이 되면서

했다가 실패해 곤경에 처하기까지 한다. 이렇듯 그는 호나미로 인해 의사의 위신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다.

27) 제인 빌링허스트, 석기용 옮김, 『요부, 그 이미지의 역사』, 이마고, 2005, 17-30쪽.

부정적 의미로 변전된다. 여기에서 “아프레”는 “애정문제에 대해서 전연무책임”한 현대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아프레” 여성은 남녀 간의 애정문제를 “아주 예사롭게” “곧 좋아졌다가 금세 헤어”질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어느 한편이 「굳바이」를 부른다면 그만”일 뿐이다. 현대 남녀관계를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분한 “불량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즐긴다. 호나미는 이러한 남녀관계를 “육체의 문제”로 보고 “아프레”의 극단적인 전형을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호나미에게 뒤따르는 명명들, “음녀(淫女), 요녀(妖女), 악녀(惡女), 독화(毒禍)” 등은 “아프레” 만큼이나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조흑조(白潮黑潮)』에서 호나미는 1950년대 다방을 경영하는 음성적인 성매매 여성이다. 그녀는 굳이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그의 행위는 스스로 “매춘부”이기를 자처하고 있다. 근대적 미모와 육체를 통해 “아프레”적 애정관계를 극대화하는 팜프 파탈의 전형을 재현한다. 그것은 호나미와 정반대의 여성, 그러니까 “아프레를 싫어”하고 “봉건적인 도덕”을 “아름다운 지주”로 여기는 여성 이경채를 곧추세우기 위한 작가적 전략으로 독자들의 바람을 이경채에게 자연스럽게 옮겨가도록 한다. 그럼에도 눈여겨 볼만한 점은, 이 소설에서 “아프레”적으로 애정관계를 재현하는 여성이 “다방 마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매춘부 아닌 직업이나 신분이 뚜렷한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 사무원, 여대생, 여염집 유부녀, 초등학교 선생, 발레리나 등이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하는 “서대문집”이나 “필동”의 요정들은 당대 사회의 변화된 성문화를 전경화하고 있다. 그들의 매춘행위는 “현대” 혹은 “아프레”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그만큼 “아프레”가 당대 사회에서 근대의 선망이 아닌 부정으로 명명되고 담론화되었던 셈이다.

3. 현대여성이라는 미망(迷妄) 넘나들기

3-1. 양가적 여성으로서 직업여성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현대여성”이라는 명명이 부쩍 많이 등장한다. 현대여성을 문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근대적 문물을 교육받았거나 향유하는 여성을 말한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근대=미국’으로 인식하고 선망하였음을 감안한다면, “현대” 여성의 “현대”는 곧 미국을 가리킨다. 문제는 미국 문물을 수용한 현대여성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현대여성으로 명명되고 재현되는 여성들은 어떠한 여성들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대 신문소설에서 현대여성으로 명명되는 대표적 여성으로 직업여성을 들 수 있다. 『여성전선(女性戰線)』의 윤옥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비석의 『여성전선(女性戰線)』은 “청춘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정투쟁”²⁸⁾을 복잡다단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연애소설이다. 이 소설은 한국전쟁기에 발표되었지만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애정투쟁”에서 초점화된 것은 전후에 새롭게 등장한 여성, 즉 “현대여성”으로 명명되거나 재현되는 여성에 있다. 그러니까 “아푸레게르”가 아닌 “현대여성”으로 명명되고 있는 셈이다. 이 소설에서 현대여성으로 호출되는 여성은 “양갈보”, “유한마담”, 직업여성인데, 여기에서는 직업여성 윤옥란을 통해 현대여성의 재현방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전략) 남성들에게 절대복종하는 여성들은 화초로서의 아름다움은 있을지언정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은 있을 수 없었다.

28) 정비석, 『여성전선(女性戰線)』, 한국출판사, 1952, 3쪽.

그런데 현준식이 보기엔 옥란은 그런 여성들과는 소질이 전혀 다른 것 같았다. 옥란은 자신의 주관(主觀)을 가졌고, 또 그것을 서슴지 않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현대 여성들의 새로운 기질인지도 모른다 싶었다.²⁹⁾

(2)

『현대 여성이란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굶으면 굶었지, 점심을 먹자면 꼭 그렇거나 레스토랑이라야 하구, 엄동설한에 몸을 오들오들 떨면서두 나이롱 양말에 하이힐을 꼭 신어야만 맛이구……허영을 위해서는 것처럼 인내심(忍耐力)이 흔한 것이 현대여성의 특징이 아니던가요?』(중략)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혼자 이런 음식점에 들어올 만한 분이려면 존경할 만한 여성이니까요!』³⁰⁾

인용문 (1)은 지미양행 전무 현준식이, (2)는 약제사 전우현이 현대여성 윤옥란을 평가해 놓은 대목이다. (1)에서 윤옥란은 “자신의 주관(主觀)을 가졌고, 또 그것을 서슴지 않고 주장”할 줄 아는 여성으로 평가된다. “절대복종”하는 전통적인 여성과 달리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현대여성인 것이다. 이러한 현대여성은 남성의 문학에서 상속된 마녀의 이미지에 가깝다. 마녀는 헌신적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주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여성이며 말할 이야기거리가 있는 여성이다. 다르게 말하면 거부장제가 마련해 준 순종적 역할을 거부하는 여성인 것이다.³¹⁾ 현

29) 정비석, 『여성전선(女性戰線)』, 한국출판사, 1952, 31쪽.

30) 정비석, 『여성전선(女性戰線)』, 한국출판사, 1952, 171쪽.

31) Sandra M. Gilbert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76.

준식은 윤옥란의 마녀적 “언동”에서 “현대여성들의 새로운 기질”을 간파하고 “신선미”를 느낀다. 여기에서 현대여성은 ‘새로움’과 ‘신선함’을 환기하는 긍정적 이미지로 재현된다. 아울러 (2)에서 윤옥란은 전우현에게 예외적인 현대여성으로 간주된다. 전우현은 윤옥란이 포장마차 호떡집에 혼자 들어와 식사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감명 받아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 추켜세운다. 윤옥란이 “허영”을 부리지 않는 현대여성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전우현이 피력하는 현대여성론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의 눈에 비친 현대여성은 한마디로 “허영” 덩어리이다. 추운 겨울에도 “나일롱 양말에 하이힐”을 신어야 하고, 점심은 반드시 “그릴이나 레스토랑”에서 해야 하며, “춤이나 추러 다니고 영화구경이나 다니면서 고도의 소비생활”을 가능하게 해 줄 남편을 얻으려 결혼을 하는 것이 현대여성이다. 그는 이러한 현대여성의 “허영”과 “경박성”을 경멸하고 있다. 이때 허영을 구성하는 자질들이 모두 미국 문물을 향유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릴이나 레스토랑”이라는 식문화 공간, “나일롱 양말에 하이힐” 등의 서양식 의복, 왈츠에 따라 추는 춤, 미국영화가 지배적이었던 외국영화의 관람 등은 양풍 모방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현대여성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자리매김할 만큼 한국전쟁기에 이미 한국사회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전우현이 비판하는 대상은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다. 즉 미국의 문물과 향락문화 자체보다 그것을 잘못 향유하는 여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전쟁기 미국문화에 대한 선망과 무차별적 수용이 빚어낸 한국 사회의 갈등을 문제적 여성으로 명명된 현대여성을 호출하여 비판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전우현의 시각에 국한되지 않는 당시 지배적 담론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적이다.

두 남성의 시각에 비친 현대여성 윤옥란은 긍정적인 여성이다. 하지만 두 남성의 시각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녀 또한 현대여성의 부정적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서 그러하다. 윤옥란은 현대여성의 자질로 연애를 든다. 그녀는 “사랑이란 한쌍의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정신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이루려는 창조정신”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강춘배와 애정 없이 연애 자체를 즐긴다. 강춘배와 연애하는 동안 윤옥란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악어백을 선물 받으며, 파티에서 댄스를 즐긴다. 그리고 강춘배에게 미인계를 써서 은행에서 부정대부를 받아내지 않게 한다. 이때 그녀는 양심의 거리낌보다 “치녀라는 조건만 가지면” 남성을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결국 그녀의 연애는 남성을 유혹하여 자신의 이속을 채기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전우현이 그토록 비판했던 현대여성의 “허영”과 “경박성”이 그녀에게도 무관하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윤옥란은 여성전선론을 개진한다. 여성전선이란 진정한 남녀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자기 머릿속에 잠재하는 노예근성과 싸우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들의 행복을 유린하는 남성들의 횡포”(195)와 “정신적으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여성전선론은 말할 거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말하지 않거나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녀의 이중적 담론³²⁾으로 볼 수 있다. 그녀는 그것을 통해 남성적 사유를 벗어나 여성 주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그러나 여성전선론이 “정신적” 투쟁에 불과하다는 점과 그녀가 바라는 이상형이 “아내의 존재같은 것을 다소 무시당해도 좋으니 적어도 자기의 신

32) Toril Moi, 임옥화·이명호·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67-70쪽.

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나가려는 그런 씩씩한 남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전선론의 실패는 불가피하다.³³⁾

이 소설에서 직업여성은 부정적으로 명명되는 현대여성의 한 부류이다. 한국전쟁기 현대여성은 허영, 경박성, 양풍 모방을 덧씌운 부정적 여성의 표상이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직업여성 윤옥란은 양가적인 현대여성이다. 그녀는 연애, 양풍 모방, 허영을 재현하는 현대여성인 동시에 전통적인 여성과 달리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줄 아는 새로움과 신선함을 지닌 현대여성이다. 더욱이 그녀는 지배적인 남성중심주의에 반항하여 여성의 주체 정립을 모색하는 여성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직업여성은 여느 현대여성과 달리 부정적인 표상만으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것은 한국전쟁기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직업여성의 존재이유와 맞물려 있다. 남성의 부재와 남성 노동력의 부족을 직업여성이 일정 정도 충당했음을 감안한다면, 직업여성을 부정적인 여성의 기호로만 표상할 수 없었던 셈이다. 그것은 “양갈보”와 “유한마담”의 표상과 사뭇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3-2. 아프레라는 이름의 여대생 구별 짓기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여대생은 여성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한다.³⁴⁾

33) 여성전선론의 실패는 작가의 남성중심주의적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복순, 「반공주의의 젠더 전유양상과 “젠더화된 읽기”-〈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제5권 제1호, 문학과영상학회, 2004, 27~54쪽; 최미진, 「부인명(夫人名)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1호, 2004, 185~203쪽; 김영애, 「〈자유부인〉에 나타난 인물형상화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207~226쪽.

34)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주요 작중인물로서 여대생의 비율이 23.2%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65쪽.

그것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여대생이 희소했다는 점, 신문소설의 과반수가 애정소설이었다는 점, 대학생과 가정주부가 신문소설의 주요 독자층이라는 점 등이 맞물려 있다.³⁵⁾ 때문에 당시 여대생은 그 기호 자체만으로도 선망의 기의를 충분히 환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대생이 전후 새로운 세대의 변화된 의식과 행동양식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인물군이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³⁶⁾ 이른바 아프레 걸로서 여대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실락원(失樂園)의 별』의 고영림을 들 수 있다.

『실락원(失樂園)의 별』에서 고영림은 영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다. 아프레 걸로서 그녀는 고영림이 아닌 “칸나”로 호명되며, “칸나”가 겪는 애정의 방향을 전경화한다.

「칸나의 의욕(意慾)」은 과거 고영림이가 사귀어 본 남성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영림 자신의 솔직 대담한 생태 묘사(生態描寫)로써 일관되어 있었다. 그 적나라한 묘사 가운데는 섹슈얼 미스터리(性的神秘)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과 아울러 철학적인 당위성(當爲性)에 까지 언급되어 있었다. (중략)

《(전략) 그렇건만 칸나는 슬펐다. 불행히도 칸나에게는 요기(妖氣)가 부족했는지 모른다. 보이프랜드들의 젊음은 좋았으나 그것은 태반이 다 쫓 병아리의 비린내를 지닌 치졸(稚拙)의 영역에서 멋 없이 우쭐했고 지긋한 사회인들의 분별(分別)은 좋았으나 그것은 언제나 세속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발효(醱酵)해 버린 술찌꺼기처럼 텅텅했다. 독도 되지 않고 약도 되지 않는 이미 알맹이를 상실한 분별이었다. 영롱한 애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칸나는 그들의 세계에서 뛰쳐 나

35)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71~75쪽.

36)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6, 33쪽.

인용문은 고영림이 소설가 강석운에게 전달한 <칸나의 의욕(意慾)>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내용의 일부이다. <칸나의 의욕(意慾)>은 여대생 칸나의 “솔직 대답”한 애정편력기이다.³⁸⁾ 그 내용은 칸나가 어떠한 남성에게서도 “영롱한 애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영롱한 애정”은 “존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것이 없는 애정은 “육체의 발화(發火)일 뿐”이다. 따라서 “칸나의 비애”는 “육체와 정신의 분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문제는 고영림이 <칸나의 의욕(意慾)>이라는 글을 왜 강석운에게 보냈는가 하는 점이다. 강석운에게는 자신의 글을 평가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애정의 대상으로 강석운을 선택하였음을 알리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물론 강석운은 그것을 간파하지 못한 채 “좋은 소설을 가진 여자”로만 여긴다. 그러나 두 중심인물의 애정관계는 <칸나의 의욕(意慾)>을 매개로 반전을 거듭하며 급속하게 발전해나간다.

이 소설에서 특이한 점은 남녀 중심인물이 펼치는 애정의 방향이 글쓰기에서 구체적인 애정행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영림의 겪는 애정의 방향은 <칸나의 의욕(意慾)>에 이은 <칸나의 저항>이라는 글쓰기 행위와 겹쳐지다가 결국 소설의 소재목 “칸나의 해방” 이후 애정을

37) 김내성, 『김내성대표문학전집 3-5: 실낙원(失樂園)의 별(상)』, 삼성문화사, 1983, 132~134쪽.

38) 『실락원(失樂園)의 별』이 연재 완료된 2년 후, 최희숙이라는 여대생이 자신의 애정의 방향을 그린 일기책 『슬픔은 강물처럼』(신태양사, 1959)을 발간해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다.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126-127쪽 참조. 『실락원(失樂園)의 별』 연재 후 단행본으로 발간되고 곧 영화로 제작되었을 만큼 당대의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서 최희숙의 행위는 고영림의 행위를 모방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실현하는 “고영림”의 행위만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칸나의 연인인 소설가 강석운도 애정의 방향이 <유혹의 강>³⁹⁾이라는 신문소설 연재와 맞물려 있다가 소설의 소재목 “유혹의 강”을 기점으로 글쓰기가 지지부진하고 결국 이애리의 댄스홀 개업 “축하파티”를 기점으로 중단된다. 이때부터 소설 쓰기는 강석운의 애정 행각으로 대체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두 중심인물의 글쓰기 행위는 매체나 독자의 개입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기현존의 이상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⁴⁰⁾ 고영림은 강석운이라는 독자, 강석운은 신문매체의 개입을 감안한 글쓰기를 하지만 고영림의 글은 강석운에서 아내 김옥영으로, 강석운의 소설은 신문매체를 매개로 한 수많은 구독자, 특히 뜻하지 않았던 고영해나 황산옥, 이애리와 같은 독자의 개입과 그 독특한 독법을 감안해야 하기에 수많은 텍스트의 산종은 필연적이다. 그만큼 고영림과 강석운의 글쓰기는 공적 매체나 사회적 규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의 글쓰기 행위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성적인’ 리비도의 경제를 따른다.⁴¹⁾ 그들의

39) 강석운이 연재하는 <유혹의 강>은 이십 년 동안 평온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온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독교인 박목사가 중년의 위기를 맞아 결국 유혹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40) 데리다에 따르면, 글쓰기는 진리와 진정성, 그리고 스스로 현존하는 ‘살아 있는’ 발화의 이상을 파괴하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것은 자기현존과 ‘자연’ 언어를 진리와 연결시키고 그 안에서 진리가 자기 표현을 찾는다는 대단히 전통적인 견해를 위협한다. Christopher Norris, *De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Methuen, 1982, p.28. Toril Moi, 임옥화·이명호·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126쪽 재인용.

41) 엘렌 식수스(Hélène Cixous)는 글쓰기의 차이를 자극시키고 추구하며 증대시키는 여성적 글쓰기를 개념화한 바 있다. 이때 그녀는 글쓰기 행위를 ‘남성적인’ 리비도의 경제와 ‘여성적인’ 리비도의 경제로 구별한다. ‘남성적인’ 리비도의 경제는 ‘고유성’의 경제에 따라 구조화되는 남성성 혹은 남성적인 가치체계에 다름 아니다. 고유성과 관련된 단어들은 자기동일성, 자기증식, 월권적 지배를 강조하는데,

애정 관계가 반전을 거듭하는 까닭은, 특히 강석운에게 내재한 사회적 규범과 본능적 욕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때문이다. 그것은 강석운이 고영림을 아내 김옥영이나 영림의 친구 이애리와 계속 견주어 보고 머뭇거리는 행위로 드러나는데, 신문소설에서도 박목사의 애정 방향과 겹쳐서 재현된다. 글쓰기를 멈추는 순간은 두 중심인물이 애정과 바람을 상호 인정하는 때이다. 고영림은 가족들에게 강석운에 대한 애정이 폭로되는 순간 “칸나의 해방”을 맞보며, 강석운은 호텔방에서 밤을 보내다가 사회적 규범을 벗어던진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여성적인’ 리비도의 경제 논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따른다. ‘남성적인’ 리비도의 경제가 끊임없이 그들을 견제하지만 한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긍정하고 만족하며 즐긴다.

두 중심인물의 애정 방향에서 유혹의 주체는 여대생 고영림이다. 고영림은 <칸나의 의욕(意慾)>이라는 글을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을 한번 유혹해 보고 싶다”는 직접적인 언설을 통해 강석운을 유혹한다. 그녀는 “칸나”라는 이름이 환기하듯 “의욕과 정열이” “왕성하게 불타” 오르는 적극적인 여성이다. 강석운은 그러한 적극성에서 “발랄한 미”를 감취하고 “교양의 뿌리를 지닌 강렬한 순수성의 악동”이자 “현대여성이 지녀야만 할 하나의 미덕인 동시에 한 송이 지성의 꽃”으로 의미화한다. 하지만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시정의 사기꾼보다” 더한, “교양의 발판을 상실한 현대적 총명의 심불”인 “전형적인 아프레 학생”으로 간주

그 고유성과 고유한 귀속을 고집하게 되면 분류화, 체계화, 위계질서화라는 남성적인 집착으로 귀결된다. 이에 반하여 ‘여성적인’ 리비도의 경제는 ‘허여성’의 영역의 특징을 지니는데, 특히 되돌려 받는다는 생각 없이 준다는,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관대함’으로 기꺼이 타자와 교통하려 한다. 그것은 타자와 함께 쾌락과 오르가즘을 상호 교환하는 해체적 공간이다. Toril Moi, 임옥화·이명호·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123-133쪽과 엘렌 식수, 박혜영 옮김, 『메두사의 웃음/출구』, 동문선, 2004, 111-131쪽 참조.

된다. 즉 고영림의 적극성은 행동 주체와 판단 주체 사이의 거리두기에 따라 “미덕”과 “악덕”으로 의미화되고 있는 것이다. 강석운을 제외하면 고영림은 대부분 후자에 치우쳐 “아푸레” 여성을 맥락화한다. 그것은 당대 아프레 걸로 거론되는 여대생이 “명랑 활발”⁴²⁾을 양풍 모방, 속물적 연애, 성적 개방성 등과 혼동하는 “기괴한 타입의 여성”⁴³⁾으로 간주되었던 것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아푸레” 여성은 구별 짓기를 통해 그 성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전후파”의 첫 번째 구별 짓기는 “전전파”의 전형인 율케 한혜련을 통해서이다. 한혜련은 영림의 오빠이자 남편인 고영해의 바람을 좌시한 채 옛 연인 돌구름의 기억만으로 살아가는 폐병환자이다. 고영림은 적극적으로 대담한 행동주의자, “개방주의”, “눈부신 햇빛”, “칸나”, “불타는 의욕”으로, 한혜련은 소극적이고 “못난 폐시미스트(悲觀論者)”, “비밀주의”, “그늘진 응달”, “봉선화”, “애수”, “프라우조르케(憂愁夫人)”로 명명되거나 비유된다. 특히 한혜련은 봉선화가 환기하는 “일편단심의 열녀”로 의미화되는데, 그것은 정숙하고 순종적인 전통적인 여성상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전후파”인 고영림은 현대적 여성상에 가깝다. 여기에는 “마녀”처럼 말할 거리가 있는 여성으로서 남성중심적 논리를 이용하고 교란시키는 팜프 파탈의 이미지가 겹쳐져 있다.

이러한 고영림의 두 번째 구별 짓기 대상은 같은 “전후파” 이애리이다. 이애리는 대학시절 계부에게 겁탈당한 후 학교를 중퇴하고 한성양조 홍보부 직원이자 사진모델로 생계를 잇고 있는 가장이다. 그녀는 고영해의 도움으로 맨스홀을 경영하게 되면서 고영해의 “금권”과 자신의 “육체권”을 당당하게 교환하는 “전후파” 여성이다. 이애리 스스로 자신의

42) 광종원, 「명랑 활발을 아프레와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여원』 1956년 10월호.
43) 이명운, 「민주여성의 진로」, 『신천지』 1954년 7월호, 94쪽.

육체를 물적 대상화하여 교환가치를 매기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전후파”로서 이애리가 “육체파”라면 고영림은 “정신파”라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두 여성을 응시하는 사회적 시선은 “양공주”와 별 차이가 없다.

이렇듯 고영림을 “전후파”로 구별짓는 타인과 사회적 시선은 “악덕”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그녀 스스로 “전후파”를 성실성과 불량성의 비율로 계산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데, 그것은 전후파의 불량성을 보다 강화하는 데 조력한다. 더욱이 그녀가 애정의 문제에서 유혹자를 자처하고 있으며, 이애리와 다른 방식으로 “육체파”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덧씌워진 불량성은 “양공주”와 동격으로 간주될 만큼 “악덕”의 잣대를 유효하게 만든다. 그것은 강석운의 부도덕성을 흐리게 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4. 신문소설 속의 아프레 걸과 남은 과제

이상에서 1950년대 발표된 신문소설을 대상으로 당대 아프레 걸을 범주화하고 그 재현방식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아프레 걸 혹은 아프레라는 명명은 195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한국전쟁기에는 소설제목에 드러났던 최태응의 『전후파(戰後派)』에서 ‘아프레게르’로 명명되기도 하지만, 전쟁 중에 후방에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같은 시기 정비석의 『여성전선(女性戰線)』에서는 현대여성이라는 명명이 대신 드러났다. 현대여성은 양갈보, 유한마담, 미혼의 직업여성을 일컫는다는 점에서 『전후파(戰後派)』와 다르다. 한편 전후 발표된 『실락원(失樂園)의 별』과 『백조호

조(白潮黑潮)』는 모두 아프레 혹은 아프레 걸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실락원(失樂園)의 별』은 아프레 걸, 아프레, 전후파, 현대여성이 혼용되고 있는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명명 방식에서 아프레 걸 혹은 아프레가 전후 여성의 특정한 경향을 일컫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프레로 명명되거나 범주화된 여성은 대체로 전통적인 여성 젠더 이데올로기에 벗어난 부정적 여성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한국전쟁기 “양갈보”는 순수성과 순결성을 상실한 팜므 파탈로, “유한마담”은 가정을 방기하고 허영으로 가득 찬 타락한 여성으로, 그리고 전후 새로운 성매매 여성인 다방마담은 전형적인 팜므 파탈로 부정적인 여성상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다만 한국전쟁기 직업여성은 허영도 없지 않지만 자기 주관에 있는 양가적 여성으로, 그리고 전후 대표적 아프레 걸인 여대생은 적극적인 발랄함과 개방성이 미덕과 악덕을 오가는 이중적 여성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후 새롭게 호명된 여성들은 순결과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 전통적인 여성상과 분명하게 차별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프레 걸 혹은 아프레로 명명된 여성들을 비판하는 지배적 담론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아프레로 명명되거나 범주화된 여성은 대립되는 여성상을 설정해두고 있었다. 대립되는 여성상은 전통적인 여성상, 그러니까 순결하고 정숙하며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상이었다. 결국 아프레로 명명되거나 범주화된 여성의 부정성은 대부분 전통적 여성의 승리의 서사로 귀결된다. 그것은 당대 사회에서 아프레 걸을 사회적 규율통제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지배적 담론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부응하는 신문소설의 타협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었다.

이 글은 1950년대 신문소설을 대상으로 한 아프레 걸 혹은 아프레 여성 연구의 시론에 해당된다. 당시 신문소설 네 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문소설에서 나타난 아프레 걸의 범주와 재현방식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대상 확대와 연구방법의 다양화, 신문매체를 비롯한 관련 자료의 확보 등을 통해 더욱 보완되어야 할 일이다. 필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다음 과제가 그만큼 많이 남겨진 셈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내성, 『김내성대표문학전집 3-5: 실낙원(失樂園)의 별(상·중·하)』, 삼성문화사, 1983.

장덕조, 『백조흑조(白潮黑潮)』, 『국제신보』, 1958. 5.14-12.31.

정비석, 『여성전선(女性戰線)』, 한국출판사, 1952.

최태용, 『전후파(戰後派)』, 정음사, 1953.

2. 논문 및 단행본

강소연, 「195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 『상허학보』 제18집, 2006, 107-136쪽.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김복순, 「대중소설의 젠더정치학」, 『대중서사연구』 제9호, 대중서사학회, 2003, 259-294쪽.

김옥란, 「1950년대 희곡의 성담론」, 『한국연극연구』 제1집, 한국연극사학회, 1998, 223-251쪽.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6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77-209쪽.

김은하,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제10권, 2003, 158-179쪽.

김인철, 「영화 영상 이미지의 ‘전형’에 관한 연구-팜므 파탈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각디자인 학술지(한국디자인포럼)』 제10권, 한국비주얼디자인학회, 2004, 201-212쪽.

김종욱, 「한국전쟁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제5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04, 229-252쪽.

남금희, 「1950년대 장덕조 소설연구-<대구매일신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 제20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305-324쪽.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6.

서인숙, 「필름 느와르의 팜프 파탈」, 『영화교육연구』 제4권, 한국영화교육학회, 2002, 155-176쪽.

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이선미, 「‘미국’을 소비하는 대도시와 미국영화」, 『상허학보』 제18집, 상허학회, 2006, 73-105쪽.

이승희,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1994.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서다』, 서해문집, 2004.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 『역사연구』 제14호, 역사학연구소, 2004, 107-148쪽.

이정희, 「전후의 성담론 연구-종전에서 4.19이전 시기의 여성잡지와 전후세대 여성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담론 201』 제8권 제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5, 193-224쪽.

최미진, 「부인명(夫人名)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1호, 2004, 185-203쪽.

최 준, 『한국신문사』, 일조각, 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함인희, 「한국전쟁, 가족, 그리고 여성의 다중적 근대성」, 『사회와 이론』 제9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06, 159-189쪽.

메릴린 엘름, 이호영 옮김, 『순종 혹은 반항의 역사 아내』, 시공사, 2003.

엘렌 식수, 박혜영 옮김, 『메두사의 웃음/출구』, 동문선, 2004.

장 클로드 코프만, 김정은 옮김, 『여자의 육체 남자의 시선』, 한국경제신문사, 1996.

제인 빌링허스트, 석기용 옮김, 『요부, 그 이미지의 역사』, 이마고, 2005.

크리스 윌링, 임인숙 옮김, 『몸의 사회학』, 나남, 1999.

Toril Moi, 임옥희·이명호·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Abstract

Apres-girls in Newspaper Novels of the 1950's

Choi, Mi-Jin

This paper aims at studying newspaper novels published in the 1950s to see how the apres-girl of the time was named and reproduced. The naming of an apres-girl or apres became pronounced after the late 1950s.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the name was "apres-guerre" as in the title of Choi Tae-eung's novel *Apres-guerre*, while the term referred to men and women who seek luxury and pleasure in the middle of the War. *A Star in Paradise Lost* and *White Morning and Black Morning* published after the mid-1950s used both "Apres" or "Apres-girl." The terms of "Apres-girl", "Apres", "Apres-guerre" and "modern women" were used altogether, which means those terms generally represent a specific propensity that post-war women had.

Most of the women called or categorized as "Apres" were reproduced as negative women straying away from traditional female gender ideology. Prostitutes patronized by foreigners and women of leisure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as well as manageresses of tearooms and dance halls during the post-war period were negatively represented as mentally and physically ruined women. Yet, prostitutes in the Korean War period were described as women of vanity but, at the same time, as gentle women with self-esteem, while college women, a typical apres-girl of the post-war period, were

reproduced as women with dual image of virtue and vice because of their unique liveliness and openness. It can be said that the traditional female gender ideology served as a dominant discourse which confers a negative image on these women.

Lastly, the women named or categorized as apres in the newspaper novels of the 1950s came to have more negative image in comparison to women with an opposite image. The opposing women show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women who are innocent, pure, submissive and dedicated. The negative image of apres-girls would mostly end up with a victory of traditional women. This reflects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inant discourse of the time which tried to use apres-girls as a means to control social regulations and the compromising attitude of the newspaper novels which conformed to the discourse.

Key Words

1950's, Korean War, post-war society, newspaper novel, Choi Tae-cung, Jeong Bi-seok, Kim Nae-seong, Jang Deok-jo, *Apres-guerre*, *Women's Front*, *A Star in Paradise Lost*, *White Morning and Black Morning*, Apres-girl, Apres, apres-guerre, avant guerre, modern women, prostitutes patronized by foreigners, women of leisure, madam freedom, prostitutes, college women, manageress, gender ideology

* 위 논문은 2007년 10월 24일 투고되어 2007년 10월 27일에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11월 21일 심사 완료 후, 11월 2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